

조선 '빅3' 체제 유지

정부, 조선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대우조선, 효율화 후
중장기적 주인찾기

해양플랜트 저가수주 방지

2020년까지 250척 이상 발주

조선업 밀집지역에 긴급경영
안정자금 1.7조원 투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도입”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희생쪽으로 방향을 잡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빅3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조선·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 관리 아래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 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등을 활용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세계 조선시장이 2018년부터는 극심한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되긴 하겠지만 2020년에도 발주량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진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라며 “이런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존 조선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선박산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황이 개선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



현대·기아차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개발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내외부의 연결성 강화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기기로 진화 중인 커넥티드 카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ccOS(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로 명명된 현대·기아차의 독자적인 커넥티드 카 운영체제는 자동차 커넥티비티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리킨다. 사진은 현대기아차 연구소 직원들이 ccOS 테스트를 하는 모습.

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휴설비와 인력의 감축, 비핵심 자산 정리 등 사별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엄밀하게 점검하겠다”며 “부실규모가 큰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국내 업체 간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조선업 밀집지역에 내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조7000억원 투입, 금융예로를 해소하고 향후 5년

간 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 참여를 통해 일감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육성해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지역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는 한편 바다·간척지 등 지역 고유의 자원과 산업기반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로 도입해 특정산업의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이 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위기에 직면한 해운산업과 관련, “선박, 화물, 인력 등 3대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하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해 화물을 수송하는 상생·협력모델을 확산해 안정적인 불동량을 확보하고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환경적응도 적극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사 3분기 실적 선방

고가요금제 가입자 증가·마케팅비 감소 영향
4분기 실적 부진할 듯... 갤럭시노트7 단종 영향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가 올 3분기(7~9월) 실적에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기대를 웃도는 좋은 성적을 보였고, SK텔레콤은 계열사 부진과 갤럭시노트7 타격으로 실적이 주춤했지만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다.

이는 전반적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며 가입자당평균 매출(ARPU)이 증가했고, 9월 갤럭시노트7 판매중지와 단종법에 따른 마케팅비 감소도 영향을 끼친 결과다.

다만 4분기(10~12월)는 10월 갤럭시노트7 단종 확정으로 인한 영업차질이 상당해, 애플 아이폰7과 LG전자 V20이 얼어붙은 통신시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3분기보다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단종법 위반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법인분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4분기 실적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LG유플러스를 끝으로 이동통신3사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

LG유플러스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총 매출 2조7370억원의 달성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0.7% 증가한 수치다.

3분기 영업이익은 211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8%, 직전분기 대비 17.3%가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개선으로 전년동기 대비 18.0%, 직전분기 대비 2.4% 늘어난 1339억원이다.

LG유플러스는 유무선 사업에서 고른 성과를 보였다. 특히 고가 요금제인 LTE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무선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8% 성장한 1조3576억원을 달성했다.

무선 가입자는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한 약 1236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LTE 가입자는 1071만명으로 전체 무선가입자의 무려 87%를 차지했다. 무선 매출은 IPTV와 초고속인터넷 등의

사업성과로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한 8964억원의 성과를 올렸다.

앞서 지난달 28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KT는 지난 분기에 이어 4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3개 분기 만에 연간 누적 영업이익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유선 가입자는 줄어들었지만 고가요금제 LTE 가입자 증가 힘이 컸다.

KT는 연결기준으로 올 3분기 매출 5조5299억2900만원, 영업이익 4015억7100만원, 당기순이익 2344억78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0.7%, 영업이익 17%, 당기순이익은 86.1%씩 모두 늘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실적 발표회에서 “갤럭시노트7 리콜·단종 영향으로 3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0.6% 감소한 4조2438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갤럭시노트7 공동 마케팅을 진행해왔다. SK텔레콤 이동통신 점유율이 50%로 업계 1위인만큼 타사보다 갤럭시노트7 타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영업이익은 4243억원, 순이익은 3221억원이었다.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은 13.52%, 당기순이익은 15.63% 하락했다. 쇼핑물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이 966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전체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다만 전분기대비로는 SK플래닛과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 영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은 4.16% 증가했고, 순이익은 SK하이닉스 자분법 이익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10.7% 올랐다.

한편 이동통신3사는 3분기 선방했지만 4분기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달 갤럭시노트7 단종 결정으로 유통망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고, 연말까지 진행되는 갤럭시노트7 수거 및 타제품 교체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업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보급형 스마트폰 경쟁 가열

삼성 '갤럭시 A8 2016' vs LG 'LG U'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 공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A8, LG전자는 U를 각각 선보이고 추가 모델 출시도 서두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SK텔레콤을 통해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A8 2016'을 단독 출시했다.

A8은 5.7인치 대화면에 풀메달 디자인을 적용했다. 갤럭시A8에 비해 배터리 및 카메라, 메모리, 중앙처리장치(AP) 등이 업그레이드됐다.

출고가는 64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SK텔레콤의 증가 요금제 '밴드 데이터 6.5G(월 통신요금 5만6100원)' 기

준 공시지원금은 25만원이다. 삼성전자는 A8을 시작으로 A5와 A7, A9 등을 차례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퀵 스프레드래곤 430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진 J 시리즈 신제품도 곧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LG전자 역시 한층 매력적인 가격 조건으로 중저가폰 경쟁에 가담했다.

최근 LG 유플러스를 통해 'LG U'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LG U'는 고화질 콘텐츠를 즐기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5.2인치 풀 HD 디스플레이와 3,000mAh 대용량 배터리, 32GB 내장 메모리를 적용했다. 30만원대 국내 보급형 스마트폰에서는 보기 힘든 높은 사양이다.

LG전자 스마트폰의 상징이던 고화질 카메라도 장착했다. 전면 800만 화

소, 후면1300만 화소다. 밝고 화사한 촬영을 위한 자동 보정 기능인 '뷰티 샷', 셔터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 촬영하는 '오토 셀피' 등 LG전자만의 차별화된 사용자 기능을 지원해 프리미엄급 카메라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상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하반기 V20와 보급형 신모델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LG전자는 “4분기에는 V20의 매출 극대화와 보급형 신모델 매출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연결해 3시간 동시 통화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통역서비스는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19개 언어로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예로사항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 안내 등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